

카트라이트 뉴질랜드 총독 내외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실비아 카트라이트 총독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뉴질랜드 총독으로 처음 우리나라를 찾아 주신 각하 내외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뉴질랜드는 6·25전쟁 당시 6천여 명이 참전해서 우리와 함께 싸운 혈맹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도 각별합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 3만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각하께서 우리 동포들을 특별히 격려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하께서는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로 존경받고 계십니다. 법조인으로서 평생을 인권 신장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뉴질랜드를 모든 면에서 세계의 모범국가로 발전시켜 온 각하와 국민의 저력

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독 각하,

우리 두 나라의 우호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었고, UN과 APEC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도 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뉴질랜드의 여섯 번째 수출시장이며, 앞으로 교역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IT·BT와 같은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가능성도 매우 큼니다. 최근 들어서는 문화교류도 매우 활발합니다. 어제 각하께서 뉴질랜드 영화를 직접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 5개 도시에서 뉴질랜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 한국영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두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가까운 장래에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뉴질랜드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